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IOSH 2019) 참석
국 외 출 장 결 과 보 고

2019. 9.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외 출장 결과보고 요약문

1. 출장목적

- 신규 협정을 맺은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 (IOSH)와의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간 유대 강화
 - 2019년 4월 협정 체결 후 강조주간 세미나에 IOSH 초청 주제발표 실시 (2019. 7. 3.) 이후 IOSH 주관 행사에 공단 초청
- 영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주요 주제 및 최신 정보 공유하는 세션의 좌장 역할 수행
- 미래를 대비하는 영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신기술 및 최신 동향 습득

2. 출장개요

- 출 장 자: 신인재 교육원장, 이미영 직업건강연구부장, 심숙 차장
- 출장기간: 2019. 9. 15.(일) ~ 9. 20.(금) (4박 6일)
- 출 장 지: 영국 버밍엄

3. 수행사항

-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세션 좌장 역할 수행
- 각 분야 세션 및 전시회 참가, 최신 국제동향 및 신기술 습득
- 향후 협력 방향 논의를 위한 평가회의 참석

목 차

I. 목적	4
II. 개요	4
III. 세부 수행사항	5
1. IOSH 2019 세션좌장역할 수행	5
가. 세션 개요	5
나. 교육원장 세션	6
다. 직업건강연구부장 세션	10
2. IOSH 2019 세션 및 전시회 참가	12
가. 등록	12
나. 세션구성	12
다. 개회식 및 개회연설	13
라. 전시장 및 휴게공간	14
마. 기조연설	15
바. 병행세션	19
사. 폐회식	24
3. 교류협력 평가 및 향후 협력방안 협의	25
IV. 선물신고 및 수령여부	27
[덧붙임]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IOSH 2019) 개요	28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IOSH 2019) 참석 국외출장 결과

I 목적

- 신규 협정기관인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와의 인적 교류를 통한 기관 상호간 유대 강화
 - ※ 2019년 7월 강조주간 중 공단에서 IOSH 초청, 세미나 주제 발표 실시 (2019. 7. 3.)
- 영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주요 주제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세션의 좌장 역할 수행
- 영국 산업안전보건분야 신 기술 및 최신 동향 등의 정보 습득

II 개요

- 출 장 자: 신인재 교육원장, 이미영 직업건강연구부장, 심숙 등 3명
- 기 간: 2019. 9. 15.(일) ~ 9. 20.(금) (4박 6일)
- 출 장 지: 영국 버밍엄
- 주요 수행사항
 - 발표 세션 좌장 역할 수행
 - IOSH 2019 세션 및 전시회 참가, 최신 국제동향 및 신기술 습득
 - 향후 협력방향 논의를 위한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와의 평가회의

영국 산업안전보건대회 (IOSH 2019)

- 주관: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IOSH,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기간: 2019. 9. 16.(월) ~ 9. 17.(화)
- 장소: 영국 버밍엄 국제회의장 (ICC,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 구성: 기조연설, 27개 병행세션, 5개 극장형 워크숍 등 세션과 전시회
- 대회주제: 내일을 향한 발걸음 (Take the next step)
- 세션주제: 7개 주제
사업과 리더십스킬, 규칙준수에서 경쟁우위까지, 선도하는 지속가능성과 인적자원, 협력, 안전보건 연구 성과, 더 나은 작업환경조성, 미래위험과 도전·기회

○ 일 정

일자	내용	비고
2019. 9. 15.(일)	• 출국	인천공항 → 암스테르담 → 버밍엄
9. 16.(월)	• IOSH 2019 세션 참가	ICC 회의장
9. 17.(화)	• 발표세션 운영(좌장역할 수행)	ICC 회의장
9. 18.(수)	• IOSH와의 평가회의	ICC 회의장 등
9. 19.(목) ~ 20.(금)	• 귀국	버밍엄 → 암스테르담 → 인천공항

Ⅲ 세부 수행사항

1. IOSH 2019 세션 좌장역할 수행

가. 운영 세션 개요

좌장	신인재 교육원장	이미영 직업건강부장
일시	2019. 9. 17.(화) 11:00~11:45 (45분)	2019. 9. 17.(화) 15:45~16:30 (45분)
장소	Hall 11 (340석)	Hall 9 (120석)
주제	성과 변화 주도를 위해 다르게 관찰하고 참여하기 (Observing and engaging differently to drive performing change)	전략적 차원에서 질병 결근의 주요요인 해결 – 직무복귀 (Tackling the leading causes of sickness absence at strategic level – recovery at work)
연사	Mr. Brian Kraus (ERM사 국제관리담당) Mr. Al Hocking (ERM사 지역안전담당)	Dr. Jenny Lunt (Alt-OH사의 건강심리학자)

나. 신인재 교육원장 운영 세션 (세션주제 1: 사업과 리더십 스킬)
성과 변화 주도를 위해 다르게 관찰하고 참여하기
(Observing and engaging differently to drive performing change)

○ 좌장 소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장으로, 「성과 변화 주도를 위해 다르게 관찰하고 참여하기」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 영광.
- 본 세션은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거양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내 리더의 역할에 대해 공유.

○ 일정 및 진행내용 소개

- 먼저 두 분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됨
- 질의응답은 청중 여러분 슬라이도(sli.do)를 통해 올려준 질문과 객석 질문을 함께 받도록 하겠음.
- 소지하신 휴대전화로 슬라이도 사이트에 접속·해시태그 IOSH 2019(#IOSH 2019) 입력후, Hall 11 선택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

슬라이도(sli.do): 회의중 관중 참여 실시간 질문 사이트(slido.com)
휴대전화로 사이트에 접속하고 회의이름과 회의장 입력하여 질문 작성. 작성된 질문은 모두가 볼 수 있어 동의하는 질문에 '좋아요'를 누르면 가장 인기 있는 질문이 맨 위로 올려지게 됨. 좌장은 제공받은 아이패드로 올려진 질문 중 주요한 질문을 정리해서 연사에게 전달하는 식의 진행



사진 1

연사와 사전회의



사진 2

좌장 인사말

○ 연사 소개

- Brian Kraus씨는 환경자원관리(ERM, Environment Resources Management)사의 안전부문 국제관리 담당으로, 감동있는 연설로 이름난 연사. 세계 각국 선도 기업의 안전환경 변화를 주도하고 안전에의 투자를 독려하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동 변화를 통한 성과 변화에 대한 저작활동에 매진.
- Al Hockings씨는 ERM사의 지역안전담당으로, 20여년간 각 산업 부문 조직에 대한 안전보건 및 환경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세계 각국 우수기업 리더를 대상으로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설득해왔음.

○ 강의 주요내용

- 조직의 리더는 상황을 다르게 볼 줄 아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조직내 상황과 구성원들의 행동방식, 지배적인 문화를 감지하는 통찰력을 갖추어야 함. 이러한 통찰력은, 안전을 비롯한 조직내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한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최전방에서 일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위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결국 조직내 안전문화가 굳건하게 자리하여 성과지향적인 조직이 되는 기반을 제공함.
- 컨설팅 전문가로서, 조직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기술’을 전수하고 있지만, 그 조직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리더. 이러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배운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체득하고 깨달아야 함. 남에게 배운 기술로는 조직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얻기가 어려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배가할 위험도 있음.
- ‘깨달음의 순간(a Eureka moment)’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하면 자신이 속한 조직내 상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깨달음의 순간’을 맞을 수 있음.

- ERM에서는 2018년 전 세계 120개 기관 144명의 조직내 안전분야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직내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음.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총합은 약 680만명, 연간 매출액의 총합은 약 4조 2530억 달러 규모의 전세계 산업을 리드하는 우수기업들임. 이들이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현장 리더십'이라고 응답. 이유는, 현장에 있지 않는 리더는 상황(사고)이 발생하면 우선 놀라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기 때문에 결국 의사결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응답자의 75%가 조직 최전방에서의 행동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현장리더십'이라고 함. 그러나, 29%의 리더만이 현장에서의 위험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현장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
- 상황 실습: 3명의 자발적 참여자와 함께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차이에 대해 토론
 - 달리는 차창으로 바라본 배경
 - 차를 멈추고 바라본 배경
 - 울타리를 넘어서 그 현장에서 바라본 상황
 어느 위치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시야의 폭이 달라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의사결정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음. 좋은 리더는, 그 현장에서 상황을 바로 보고 대처할 수 있는 현장리더십을 갖춘 리더. 많이 보려고 노력할수록 더 잘 볼 수 있게 됨.



사진 3 청중 3명의 참여로 상황분석



사진 4 질의응답

- 있는 그대로의 상황 인지를 방해하는 자기한계. 현장에서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알고 있는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면만 보려는 편견 때문에 문제를 한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한 처방도 근본적 문제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내리게 됨.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보기 위해서는
 - 한 걸음 물러서서 (take a step back)
 - 멈춰서 바라보고 (stop and look)
 - 문제 상황을 다른 사람과 함께 바라보아야 하며 (more eyes to see more)
 -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 지 조심스럽게 결정하여야 함 (carefully decide where to stand)
 - 어디까지를 볼 것인 지 프레임을 결정하고, (define the frame and draw the frame)
 - 보이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 (describe the scene, call out what you see)
 - 큰 블록에서부터, 배경·대상·사람·행동으로 좁혀서 봄 (big blocks first, background, weather, objects, activities, people and then behaviors)
 - 보이는 것을 먼저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다음에 본다 (see the visible and then invisible)
- 리더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면, 참여의 방향도 달라짐. 조직구성원과 상호신뢰관계(rapport)가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 and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코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
- 리더의 조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만이 조직내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처치할 수 있는 조직원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 다. 이미영 직업건강연구부장 운영 세션 (주제6: 더 건강한 작업장)
전략적 차원에서 질병 결근의 주요요인 해결 - 직무복귀
(Tackling the leading causes of sickness absence at a strategic level - recovery at work)

○ 좌장 인사말

- 좌장 및 연사소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연구부장으로, 본 세션의 좌장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사.
 - Jenny Lunt 박사는 20년 경력의 산업보건 심리학자이자 산업보건 컨설팅사 Alt-OH의 실장으로, 교육과 연구·상담 등의 업무를 해왔음. 오늘 세션에서는 질병결근으로부터 직무복귀까지 관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게 됨.
- 진행일정 소개
 -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슬라이드를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면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 주요 강의내용

-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노동자들이 스트레스, 우울, 걱정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결근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무복귀를 돕는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개입이 중요.
- 일하는 사람 누구나 다소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으며, 이는 증상이 없는 단계서부터 시작해 일상에 문제가 없는 약간의 증상이 발현되는 단계로, 직업관련성 증상으로, 결근으로, 그리고 복귀 불가능한 장기 결근으로 이어짐.
- 깃 경제(gig economy)에서 휴대전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연대·소속감 없이 혼자 일하는 저경력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 증가 추세.
- 관리자는 이들에 대한 예방부터 치료, 직무복귀까지를 도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개입해야 함.
(근무시간 단축, 재택근무, 근무장소 조정 등과 같은 유연성 적용)

- ‘일이란, 건강할 때는 편안해야하고, 병들거나 다쳤을 때는 휴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학박사 Norton Hadler의 말처럼, 보건관리자는 스트레스, 걱정, 우울, 근골격 질환과 같은 주된 요인으로 인한 결근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순간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함.



- 국가·사회 차원의 좋은 산업보건 환경 (Good OH-Culture)
 - 조직 차원의 좋은 일자리 (Good Jobs)
 - 개인 차원의 협조적 작업환경 등 (Supportive Workplaces)
- 이 세 가지 조건이 어우러졌을 때 질환으로부터의 직무복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고군분투하는 질환자에게 적시 개입하여 지원하는 ‘협조적 작업환경’ 영역에 해당.
- 보건관리자는 고통받는 개인에게 적절한 개입 시점을 인지하고 반응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직무가능성 여부를 빠르게 인지하여야 하고, 직무복귀나 유지에 장애요인은 없는지 파악하여야 하고, 복귀의 장애요인 관리와 복귀에 필요한 시간 관리 및 소속 팀원들의 협조를 구하여야 함. 이와 함께, 소속 기관의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진 5 좌장의 세션 소개



사진 6 직무복귀 과정의 관리자 역할 강의

2. IOSH 2019 세션 및 전시회 참가

가. 등록

- 사전 온라인 등록으로, 접수대에서는 이름표와 키트만 수령하는 간단한 절차로 혼잡없이 원활한 접수 진행 (가방 자율 배포).

※ 등록비: 일반 600파운드, 회원 500파운드 (20% 부가세 별도)
공단 참가자 3명에 대해서는 VIP 초청으로 등록비 면제 지원

- 대회 등록 및 참가자: 978명

- 행사장(ICC, 버밍엄 국제회의장)과 숙소(하얏트)간 거리 150m 두 건물 간 내부 다리로 연결하여 편리하게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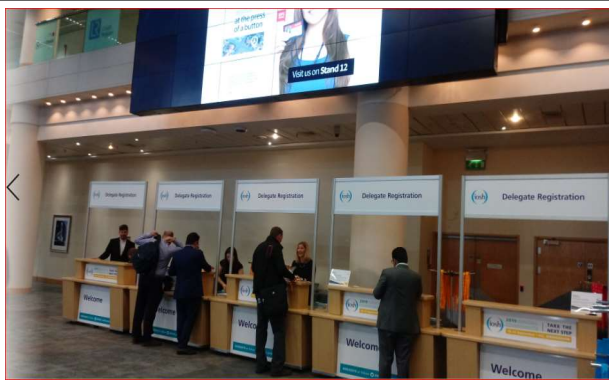


사진 7

접수대



사진 8

대회 키트 및 이름표

나. 세션 구성

구분	1일차	2일차
오전	- 조찬세션 - 개회식 (사회: Cathy Newman, BBC앵커) - 개회연설	- 조찬세션 - 기조연설(1개) - 극장식 워크숍(1개) - 병행세션(4개) - 패널토의(1개)
점심식사	전시장(Hall 3)내 제공	
오후	- 병행세션(15개) - 기조연설(1개) - 패널토의(1개) - 극장식 워크숍 및 컨설팅(2개) - 환영행사	- 극장식 워크숍(1개) - 패널토의(1개) - 폐회식 - 병행세션(8개)

다. 개회식 및 개회연설

○ 일시 및 장소: 2019. 9. 16.(월) 09:45 ~ 10:45, Hall 1

○ 개회사: Vincent Ho, IOSH 회장

- 2019년 대회주제는 '내일을 향한 발걸음(Take the next step)'으로 현재 우리가 처한 산업안전보건의 현실에서 만나는 주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7개 주제의 27개 병행세션과 저명한 연사의 기조연설, 패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 이 자리에는 IOSH와 협력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심. 우리가 서로 연대하여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하든 똑같이 보호받으면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 이 대회가 그 장이 되기를 바람.

○ 개회연설: Martin Temple, HSE 회장

- 캐나다 작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은 '미래는 벌써 와있다. 다만, 고르지 않게 와있을 뿐(the future is already here - it's just not very evenly distributed)'라고 하였음. 우리가 대비하는 미래가, 누군가에는 현실일 것이고, 또 우리의 현실은 누군가에게 지향하고 싶은 미래일 수 있음.
- 현재의 직업은 5년 전과는 많이 다르고 향후 5년도 현재와는 많이 달라질 것임. 모든 분야에 IT 신기술이 적용될 것이며, 보건분야에서는 노동자의 고령화, 다국적화, 다세대화, 정신건강 등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날 것임.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잘 준비하였는가에 따라 미래가 선물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음. HSE는 미래 고도의 컴퓨터화로 인한 사이버 공격을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혼자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ISO 45001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한 가이드 수정, BREXIT 이후 또는 타결되지 않을 경우의 산업안전보건에의 영향도 함께 대응하고 있음. 미래는 모든 노동자가 완전한 웰빙을 누릴 수 있어야 함. HSE는 IOSH 등 모든 기관과 미래에 영향을 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비해서 협업하고 있음.

- 슬라이드 청중 질문:

Q '노동자 정신건강' 관련 정신질환에 대한 질병 인정에 대해 HSE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A 영국 재해발생보고규정(RIDDOR,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는 현재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을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완 과정에 있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어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규정이 수정되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가이드와 진단 툴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될 것. 현재 규정은, 고용주는 노동자가 직업관련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 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이를 경감하거나 없애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사진 9 | Vincent Ho IOSH 회장 개회사



사진 10 | Martin Temple HSE 회장 개회 연설

라. 전시장 및 휴게공간

IOSH, Lloyd 등 영국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34개 부스, 음료 및 다과,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휴식공간이자 일정 중 첫 세션(조찬 세션)이 열리는 공간



사진 11 | 전시장내 부스



사진 12 | 전시장내 식사 및 음료 제공

마. 기조연설

1) 1일차 기조연설: Dr. John Briffa, 의사·작가·국제강사

○ 일시: 2019. 9. 16.(월) 14:30, Hall 1

○ 주제: 개인과 조직의 웰빙, 성과 및 생산성 최적화 전략

(Taking care of business - Strategies for optimising individual and organisational wellbeing,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 주요내용

- 조직의 '리더십·지식·전략·경험과 방향성'이 구성원 개개인의 '에너지·웰빙'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생산성 향상, 성과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개인의 '에너지'
에너지가 없는 개인은 '스트레스와 고통·조직활동 미참여·정신건강문제·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이러한 개인이 소속된 조직은 '결근·근무태만·미참여 및 사기저하·낮은 이직·생산성 저하·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 등의 문제에 접하게 됨. 개인의 결근은 병산의 일각으로, 그 기저에는 근무태만과 조직활동 미참여 및 소속감 부재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업에 심각한 부담이 되는 요인. 연간 1인당 약 1,000파운드에서 2,500파운드 (한화 약 150만원 ~ 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보존시키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함

• 아침식사

- 하루중 가장 중요한 식사
- 정해진 시간을 지켜 먹는 것이 중요
(아침 등 늦은 식사는 먹지 않는 것과 같음)

• 충분한 수분섭취

- 성인여성 기준 하루 8잔,
- 남자는 키·몸무게 고려 50% 이상 증량
- 계절 고려 가감
- 차·커피가 탈수 유발한다는 것은 오해
물 대신 섭취해도 좋음
- 뇌의 2/3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유동적·긍정적 사고 가능

• 운동

- 운동하러 갈 시간 없다는 것은 핑계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라도 매일·주기적
으로 해야 함 (최소 45초 이상)

• 아침 햇살

- 아침 햇빛은 활동성·정신건강에 좋은 세로
토닌 분비 (달빛은 수면에 좋은 멜라토닌 분비)
- 충분히 햇빛을 받아야 활기차게 하루 시작

• 찬물 샤워

- 14℃ 찬물샤워는 신체 에너지 증가
- 신진대사를 530%까지 향상시켜
긍정에너지와 활동성 강화
- 동기 부여하는 도파민 250% 향상, 준비성과
학습능력 강화하는 노라드레날린 530% 향상

• 긍정사고 (마인드컨트롤)

- 마음도 몸과 같이 훈련과 습관으로
단련될 수 있음
-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걱정 등 통제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것은 흘러가게 둘 것
- 원치 않은 '사고'를 기대치 않은 '이벤트'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마음가짐과 대책이 달라짐

- 인생이 힘들다 생각 될 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
 - 한 발 떨어져서 '이런 상황에 처한 다른 이에게 조언을 한다'는 자세로 바라보면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음.
 -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 내게 발생한 '문제'를 내 인생의 '이벤트'로 바라보고 시간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
 - 남과 비교하지 말라.
- 앞서 말한 6가지 방법이나, 긍정사고는 꾸준함이 중요. 신체나 정신이나 연습과 훈련은 언제나 정답(Practice makes perfect)
- 지금하고 있는 일(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에너지와 웰빙을 먼저 살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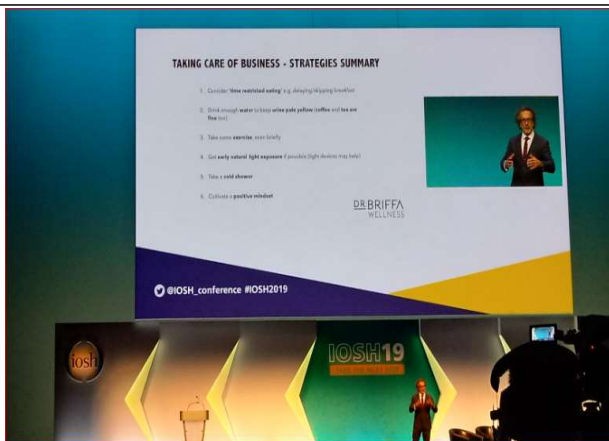


사진 13 | 기조연설 1) John Briffa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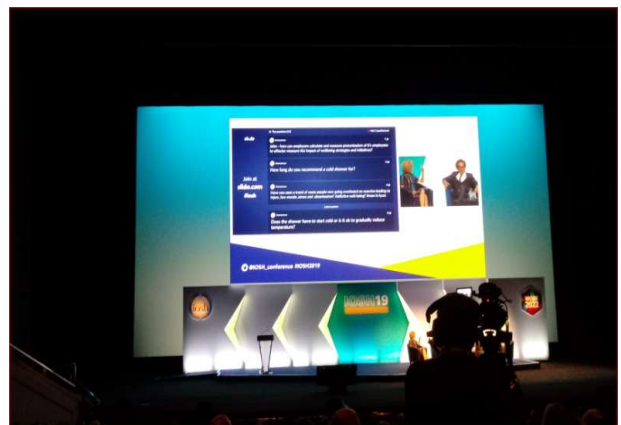


사진 14 | 질의응답

Dr. John Briffa (의학박사, 저자, 국제강사)

- 전문분야는 웰빙, 회복력향상을 통한 성과극대화
- 'Dr. Briffa Wellness' 재단을 통해 교육, 강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영양, 운동, 호흡과 수면 등이 신체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로 제공
- 저서로는 '사무실에서의 멋진 하루(A great day at the office)', 건강을 위한 음식 (Food for health) 등 다수
- 영국 BBC 투데이쇼 등 다수의 방송에서 웰빙과 사업의 성공 등에 대해 강연
- 연사홈페이지: drbriffa.com



2) 2일차 기조연설: Frank Gardner, BBC 기자·작가

○ 일시: 2019. 9. 17.(화) 09:15, Hall 1

○ 주제: 동기부여 강의 - 역경에 적응하기

(Motivational keynote: Adapting to adversity)

○ 주요내용

- 모험과 위험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고로 이어지느냐 아닌가의 차이. 어쩌면 모험에는 감춰진 위험이 있을 것. 스키를 좋아했는데, 스키도 모험과 위험을 모두 담고 있는 스포츠.
- 1980년대 아랍어로 학위를 받고 1995년 BBC에 입사, 이집트·수단 등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모험을 다녔음. 긴장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맛보았으며 2004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되어 취재활동 중 급진 알카에다에게 6차례 총격을 받고 중상. 함께 간 아일랜드인 카메라맨은 현장에서 사망.
- 현지 병원에서 14차례 수술을 받고 2005년 영국으로 옮겨져 후속 조치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이후 신체와 정신 재활을 위한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냄. 심리치료를 도왔던 의사의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못하는 것은 그냥 두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말에 힘을 얻어 재활에 성공.
- 병원에서 보내는 3개월 동안 근육이 모두 손실되어 몸을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쌓여있던 순간, 스키를 다시 배워보라는 아내의 조언에 따라 스키를 배워 장애인 올림픽 선수로 출전하기도 함. 이후 스쿠버다이버로도 활동.
- 역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BBC 기자로 복귀했으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음. 장애는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그렇다면 장애의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의 방법. 사회의 협조도 필요. 해외 출장 중 공항(영국 히드로)에서 휠체어를 분실해 2시간 넘게 발이 묶인 적이 있음.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 본인의 사례를 계기로, BBC는 기자들이 처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게 되었으며 업무로 장애를 겪은 직원들의 재활을 위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2013년, BBC는 '프랭크 가드너의 사우디아라비아로의 귀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그간 근무했던 예멘 국경, 제다, 리야드 병원 등을 방문하여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줌.
- 모험과 위험은 분리할 수 없이 함께 가는 공동 운명. 모험속에 도사린 위험을 분석하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라면 그 역경에 적응하고 이겨내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함.
- 장애로 인해 삶이 많이 달라졌지만,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음.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삶에서 유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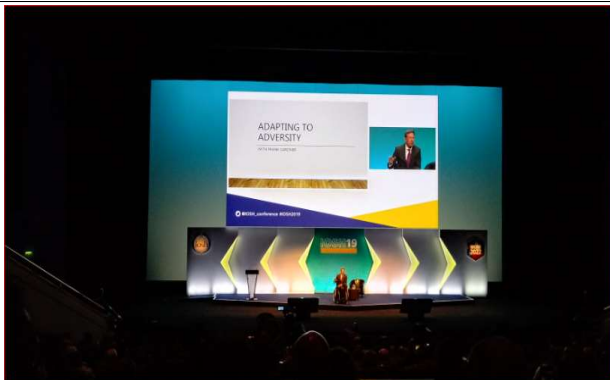


사진 15 | 기조연설 2) Frank Gardner 기자



사진 16 | 재활을 거쳐 스쿠버 다이빙하는 기자

Francis Rolleston Gardner(언론인, 작가)

- BBC 기자, 작가이며 보안특파원
- 1995년 BBC 월드에 프로듀서 및 기자로 합류
1997년 BBC 최초 걸프만 전담 특파원으로 활동
- 2001년 9/11테러 이후 세계 안보에 초점 맞추고 아랍세계에 대한 대중의 오해 해결을 위한 노력
- 2004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취재도중 극단주의로 악명높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알-스와이디에서 알카에다 총격으로



- 복부, 어깨, 다리 등에 6차례 총상을 입고 척추신경을 다쳐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
- 2005년 영국여왕으로부터 저널리즘부문 OBE상 수상
- 저서로는 '최후통첩(Ultimatum)', '위기(Crisis)' 등 네 편의 소설로 선데이타임즈 1위

바. 주요 병행세션

1) 병행세션 1: Kevin Hard, OCAID 개발국장

○ 일시: 2019. 9. 16.(월) 11:30 ~ 12:15, Hall 1

○ 주제: 돌봄문화 (웰빙) - 회복력있는 조직, 회복력 있는 직원 구성
(A culture of care - building resilient people in resilient organizations)

○ 주요내용

- 문화의 구성요인은 언어, 의식, 믿음과 유물(language, rituals, beliefs and artefacts). 문화는 구성원의 행동양식을 결정함. 돌봄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리더십과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연구와 사례에 기반한 증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 조직은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필요로 하고, 리더십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요인. 가장 나쁜 커뮤니케이션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해시키지 못한 것을 이해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 리더는 좋은 리더십과 나쁜 리더십의 차이를 구분하여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회복력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어야 함.

• 나쁜리더십 (VUCA)

- V: Volatile (변덕스럽고)
- U: Uncertain (불확실하며)
- C: Complex (복잡하고)
- A: Ambiguous (애매모호한)

• 좋은 리더십

- Visible / invisible leadership
(보이는 리더십 /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리더십)
- Distribute Authority / leads to knowledge
(권한이양, 지식 전달)
- Collaboration
(협력: 다른 그룹은 혁신과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의 핵심요인)

- 돌봄문화가 있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 돌봄문화가 있는 조직: 안전이 보장되고, 업무의 질의 높으며, 생산성이 높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됨.
 - 돌봄문화가 없는 조직: 결근과 근무태만 비중이 높고 내부 조직력이 약화되어 있음.
- 직원의 참여가 높은 조직은 데이터가 아닌 '관계'에 기반한 전략적인 서사를 함의하고 있으며, 직원에게 영향력 있는 관리자는 직원을 관리하고 지시하기보다

- 독려하고 (facilitate) · 위임하며 (empower)
 - 인정하고 (recognize) · 존중하는 (respect) 모습을 보이며
- 직원들은 조직에 목소리를 내고, 조직은 이에 귀를 기울임.
- 좋은 리더는 타고나는가? 누구나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 하물며 칠면조도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차를 막아 도로를 통제하고 모두 안전하게 건너고 나서 마지막으로 건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함.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공감하며 지혜롭게 직원들을 돌본다면 직원들의 회복력을 향상시켜 회복력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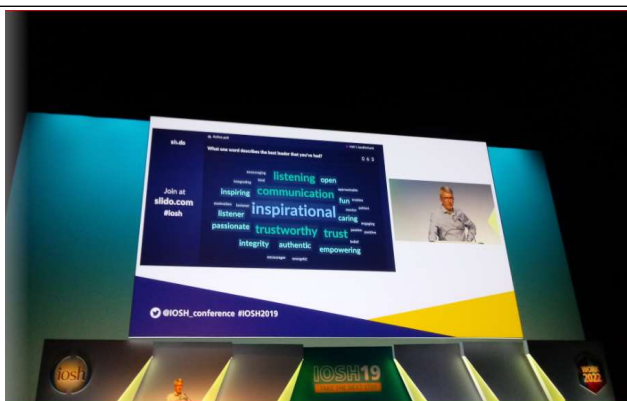


사진 17 병행세션 1) Kevin Hard



사진 18 칠면조의 리더십 미국 뉴햄프셔

2) 병행세션 2: Abigail Hirshman, Acas사 정신건강 및 웰빙 국장

○ 일시: 2019. 9. 16.(월) 12:25~13:10, Hall 9

○ 주제: 사회심리학적 위험 관리 -

작업현장에서 정신건강 증진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

(Managing psychosocial risk -

practical steps to promote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 주요 내용

-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정신건강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관리자, 그리고 직원 개개인이 함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는 한편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정신적인 문제의 원인에는 각자 다른 개인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업무와 연계되어 성과에 영향을 준다면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 사업주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함.

- 직장내 사회심리학적 주 요인은
 - 감당하기 힘든 업무부담 (unmanageable workload)
 - 정의가 불분명한 직무역할 (poorly defined job role)
 - 통제부족 (lack of control)
 - 일과 개인생활의 불균형 (unhealthy work-life balance)
 - 빈약한 대인관계 (poor relationship)
 - 조직 변화, 직업불안정성 (organizational change, job insecurity)
 - 직무다양성 부족, 제한된 경력관리 경로
(lack of variety in work, limited career progression)
- 직장내 정신건강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이유:
 - 정신건강과 웰빙이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 대책은 발생상황에 대한 사후대응, 선제적·예방적이지 않고
 -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측정 방법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 우수사례에 대한 집단지식이 부족하기 때문
- 사업주, 관리자, 직원 각자의 역할을 통해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직장 구현
 - 사업주는 정신건강 증진에 헌신적으로 임해야하고
 - 관리자는 직원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하고
 - 직원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 정신건강 문제는 어느 특정인, 특정 조직에 한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누구에게나 다 맞는 처방이란 없으므로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관리자,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와 개입 필요.



사진 19 | 병행세션 2) Abigail Hirsh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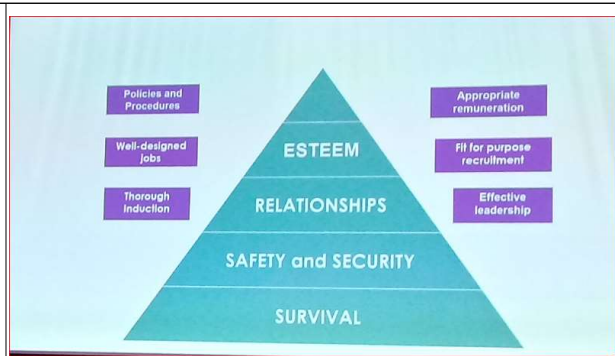


사진 20 | 직장생활의 5단계

3) 병행세션 3: Dr. Jutta Tobias Mortlock, 런던대학교 교수

○ 일시: 2019. 9. 17.(화) 14:50~15:35, Hall 11

○ 주제: 마음수련을 활용한 효과적인 안전문화 조성

(Using mindfulness to generate an effective safety culture)

○ 주요 내용

-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마음수련은 팀, 조직 수준에서 동료가 받는 스트레스를 예측하고 공동 대응
- 마음수련은 과학이 아니라 상식으로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마음수련을 조직에서 함께하는 방법(예시)
 - 먼저, 차례를 알리는 공을 준비하고
 - 둥글게 앉아 현재의 상황에만 집중
 - 이슈(예: mindfulness)관련 떠오르는 한 단어를 1초내에 말하고 차례 넘기기
 - 함께 참여하는 이들과의 공감대를 통한 상호 이해
- 신중한 조직(mindful organization)의 특성
 - 역동적인 조직의 현실에 민감하게 대응
 - 문제 상황이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참여
 - 현실을 단순화하지 않음 (간과하거나 단순화한 것은 없는 지 지속 점검)
 - 회복력 높고 민첩한 인적 자원 육성에 헌신
 - 전문가의 의견을 실시간 반영
- 이러한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이 가치와 믿음, 규칙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
- 조직내 '열린문화'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어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짐.



사진 21

병행세션 3) Jut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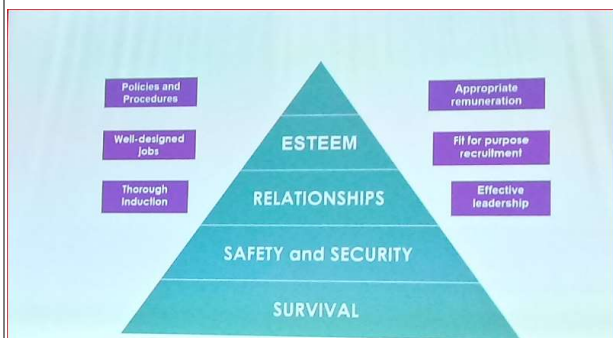


사진 22

직장생활의 5단계

4) 병행세션 4: Simon Butt-Bethlenny, IOSH 홍보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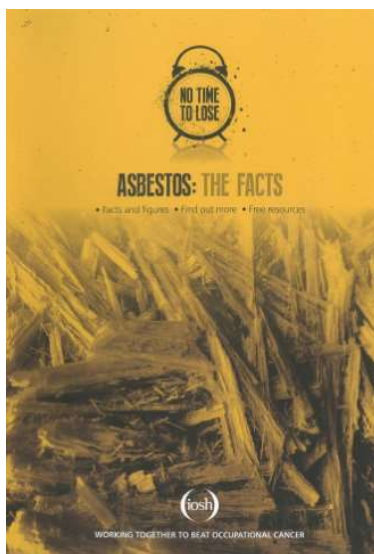
Dr. Diana Gagliardi, ICOH 산업보건과학위원회 총무

○ 일시: 2019. 9. 17.(화) 14:50 ~ 15:35, Hall 10

○ 주제: 직업성 암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투쟁
(The global fight to save lives from occupational cancer)

○ 주요 내용

- 직업성 암은 연도별로 암 발생의 4 ~ 20%를 차지하였음.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사망.
- 2018년 국제산업보건대회에서 채택한 더블린 성명에서 직업성 암의 예방을 위해 국제산업보건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선언하였으며, 현재 37개국이 예방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이를 위해 'No time to lose(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는 표어를 선정하여 석면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350개 기관이 이에 참여.



자료 1 병행세션 4) 'No time to lose' 캠페인 자료

-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1) 노출 평가, 2) 예방 대책 수립, 3) 관계자 교육, 4) 노동자 참여 프로그램, 5) 해당 물질 유통 추적 관리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음.

사. 폐회사 (Andrew Sharman, IOSH 신임회장)

○ 일시: 2019. 9. 17.(화) 14:30 ~ 14:50, Hall 1

○ 주제: 대회 평가 및 정리 (Conclusion and Summary)

○ 주요 내용

- 올해 대회는 ‘내일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대회 주제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7개 주제의 다양한 세션으로 마련하였음.
- 저명한 연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연구결과에 기반한 발표가 동 시간대에 이루어져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끼셨을 것임.
- 방금 전 마친 안전보건 인적자원 관련 패널토의는 지난 4월, 파리에서 열린 미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인적자원에의 투자를 주제로 한 세미나 후속 토의였음. 우리는 미래 산업안전보건에 ‘사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전문가 육성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 이를 위해 기업들은 투명성과 청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직원 역량강화 및 정신건강 증진, 안전보건 강화를 통해 사람이 먼저인 안전보건을 실현하여야 함.
- HSE Martin Temple 국장의 ‘미래는 벌써 와있다. 다만 고르지 않을 뿐’이라는 윌리엄 집슨의 인용구에 공감함. 영국의 미래가 어느 곳에서는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 어딘가의 미래일 것. 다만, 세계 어느 곳에서 일하든 노동자 모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고르게 누려야 함. 그 목표를 위해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 이 대회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램.
- IOSH는 ‘Work 2022’ 캠페인으로 미래 산업안전보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내년은 IOSH가 75주년을 맞는 해임. IOSH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임 회장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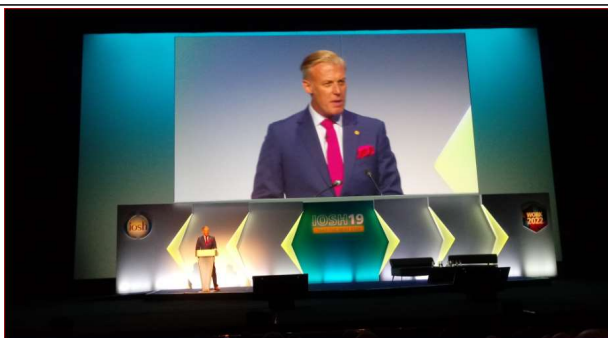


사진 23 Andrew Sharman 신임회장 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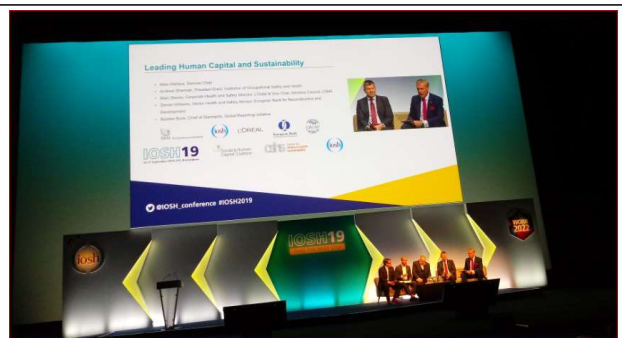


사진 24 폐회식 전 인적자원개발 패널토의

3. 교류협력 평가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가. 4월 MOU 이후의 교류 및 성과 평가

- 4월 1일, IOSH 본사(Leicester 소재)에서 이루어진 양 기관 간 MOU 이후 양 기관의 교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음
- 양 기관의 기술·정보·노하우 교류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기여
 - IOSH의 안전보건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한 공단의 안전보건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 2019년 7월 강조주간 중 IOSH 연사 초청 (2019. 7. 1. ~ 7. 4.)

- 산업안전보건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 일시: 2019. 7. 3.(수) 14:00 ~ 17:00
 - 장소: COEX 회의실(서울 강남)
 - 연사: Alan Stevens 국제협력실장
- ILO 연수단 대상 'No time to lose' 캠페인 강의
 - 일시: 2019. 7. 3.(수) 09:00 ~ 10:00
 - 장소: 호텔 리베라 회의실(서울 강남)
 - 연사: Gisela Derrick 팀장
- 안전보건교육 협력방안 논의
 - 일시: 2019. 7. 4.(목) 11:00 ~ 12:00
 - 장소: COEX 회의실(서울 강남)
 - 참석: 공단 교육원 배영복 교수실장, IOSH Stevens 실장·Gisela 팀장 등 8명

• IOSH 2019 행사 중 공단 초청(2019. 9. 16. ~ 9. 18.)

- Vincent Ho IOSH 현 회장 면담
 - 일시: 2019. 9. 17.(화) 10:00 ~ 10:30
 - 장소: 버밍엄 ICC내 IOSH 전시관
 - 참석: 신인재 교육원장, 이미영 부장, Vincent Ho IOSH 회장
- IOSH 2019 세션 좌장 초청
 - 일시: 2019. 9. 17.(화) 11:00 ~ 11:45, 15:45 ~ 16:30
 - 장소: 버밍엄 ICC 회의실
 - 좌장: 신인재 교육원장, 이미영 부장
- 문화행사 초청
 - 일시: 2019. 9. 16.(월) 18:00 ~ 22:00
 - 장소: 버밍엄 Aston Villa 축구경기장
 - 참석: 신인재 교육원장 등 공단 직원 3명, Craig Foyle IOSH 전임회장, Louise Hosking IOSH 부회장 등 IOSH 직원 5명, IOSH 홍콩지사 직원 등 총 21명
- 환송만찬 초청
 - 일시: 2019. 9. 17.(화) 18:30 ~ 20:00
 - 장소: 버밍엄 ICC 회의실(Hall 11)
 - 참석: 신인재 교육원장 등 공단 직원 3명, Bev Messinger IOSH 대표, 전임 및 현·차기 회장, IOSH 회원 등 100여 명

나. 향후 협력방안

○ 인적 자원 교류

- 공단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으로 IOSH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2020년 강조주간 행사 등)
- IOSH 창립 75주년 행사에 공단 주요 인사 초청 (2020년)

※ IOSH 창립: 1945년 (본부소재지 Wigston, Leceister, UK)

- 대표) Bev Messinger
- 회장) Andrew Sharman (2019. 9. 17. ~ 2020.) (임기 1년)

○ 정보 교류

-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등 양 기관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수시)

○ 기타

- 양국 산업안전보건 현황 파악을 위한 기관 방문, 언론의 취재 요청 등 필요시 상호 협조 (수시)

IV

선물신고 및 수령여부

수령 여부	신고 여부	비고
(×)	(×)	

※ 10만원(미화 100달러)이상 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선물 수령 시 지체없이 감사실에 신고

□ 대회개요

- 대회기간: 2019. 9. 16.(월) ~ 17.(화)
- 대회장소: 영국 버밍엄 국제전시장 (ICC, Birmingham)
- 대회주제: 내일을 향한 발걸음 (Take the Next Step)
- 2019년 대회 핵심 발표주제 (7개 주제)
 - 사업과 리더십 스킬 (Business and leadership skill)
 - 규칙준수에서 경쟁우위까지 (From compliance to competitive advantage)
 - 지속가능성과 인적자원 선도 (Leading sustainability and human capital)
 - 협력 (Collaborating with others)
 - 안전보건연구의 시사점 (What we can learn from OSH research)
 - 더 건강한 사업장 (Healthier workplaces)
 - 미래의 위험, 도전과제와 기회 (Future risk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 일자별 주요 세션 구성

- 1일차
 - 오전: 등록, 개회사(회장), 개회연설(HSE 대표), 병행세션(5개)
 - 오후: 병행세션(10개), 기조연설(1개), 극장식 워크숍(3개)
- 2일차
 - 오전: 기조연설(4개), 극장식 워크숍(1개), 병행세션(4개)
 - 오후: 기조연설(1개), 병행세션(8개), 극장식 워크숍(1개)

□ 일자별 프로그램 상세 일정

Day 1 – Programme overview | 16 September

07.45	Registration and exhibition	
08.45	Breakfast session (45 minutes)	
Hall 3	Give back to pay forward – H&S making a difference	
09.45	Chair's opening remarks	
Hall 1	Cathy Newman, Journalist and broadcaster	
09.55	President's welcome	
Hall 1	Professor Vincent Ho, President, IOSH	
10.05	Opening address	
Hall 1	Martin Temple, Chair, HSE	
10.45	Refreshments and exhibition (45 minutes)	
10.50	Consultancy clinic 1 (30 minutes during refreshment break)	
ER 1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scoping the work)	
10.50	Spotlight on exhibitors (30 minutes during refreshment break)	
Hall 3	SHE Software Make Business StaySafe	
11.30	Parallel sessions (45 minutes)	
Hall 1	01 A culture of care – building resilient people in resilient organisations	
Hall 11	02 Effective safety management across the boundaries in contractor relationships	
Hall 9	03 Avatar – from movie to safe moving and handling through virtual ergonomics	
Hall 10	04 Beyond the technical – how CPD can prove soft and leadership skills	
Hall 3	05 OHS professionals and grassroots worker organisations working together in Bangladesh's garment industry	
12.25	Parallel sessions (45 minutes)	
Hall 11	06 Risk profiling – contribution to the rich picture for resource prioritisation	
Hall 1	07 Understanding process variability – the key to unleashing safety culture	
Hall 3	08 Out of the fire – a multimodal virtual reality-based training system with heat and smell	
Hall 9	09 Managing psychosocial risk – practical steps to promote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Hall 10	10 One step beyond	
13.10	Lunch and exhibition (80 minutes)	
13.50	Theatre workshop 1 (30 minutes during lunch)	
Hall 3	Collaboration – underpinning skills	
13.50	Consultancy clinic 2 (30 minutes during lunch)	
ER 1	Insuring your consultancy	
14.30	Taking care of business – Strategies for optimising individual and organisational wellbeing,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Dr John Briffa, practising doctor, author and international speaker	
Hall 1		
15.30	Growing your influence – how you can excel at cross-functional collaboration: a panel debate: Chaired by Cathy Newman. Panel: Ruth Wilkinson, Head of Health and Safety, IOSH; Luffa Khnom-Ramsden,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McOnie Agency, Ed Houghton, Head of Research and Thought Leadership, CIPD and Adam Sewell-Jones, Improvement Advisor	
Hall 1		
16.20	Refreshments and exhibition (45 minutes)	
16.25	Theatre workshop 2 (30 minutes during refreshment break)	
Hall 3	Inside the opera 'factory' – protecting musicians from noise	
16.25	Consultancy clinic 3 (30 minutes during refreshment break)	
ER 1	Role of a consultant	
17.05	Parallel sessions (45 minutes)	
Hall 10	11 Watch your language!	
Hall 1	12 Safety culture and leadership at grass roots level	
Hall 9	13 The safe and healthy route to going global	
Hall 11	14 A hitchhiker's guide to the use of bow tie methodology to assess threats and consequences for hazards and identify effective controls to minimise risk arising	
Hall 3	15 Construction site evacuation safety – evacuation strategies for tall construction sites	
18.00	Networking drinks reception in exhibition area (Hall 3) – sponsored by Lloyds Register	

Day 2 – Programme overview | 17 September

07.45 Registration (for day two delegates only) and exhibition

08.00 Breakfast briefing (45 minutes)

Hall 11 Legal reflections on safety leadership

08.00 Breakfast panel debate (45 minutes)

Hall 1 Leaders creating disruptive thinking

09.00 Chair's welcome to day two

Cathy Newman, Journalist and broadcaster

09.15 Motivational keynote

Hall 1 Frank Gardner, Journalist and author

10.15 Refreshments and exhibition (30 minutes)

10.20 Theatre workshop 3 (30 minutes during refreshment break)

Hall 1 Serious injury and fatality prevention – perspectives and practices

11.00 Parallel sessions (45 minutes)

Hall 1 16 Human capital – valuing our business, valuing our people

Hall 9 17 Re-thinking the leader-centric approach to improving health and safety performance – a case study of research into practice

Hall 10 18 Put your own mask on first

Hall 11 19 Observing and engaging differently to drive performance change

11.50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 building a brighter future

Hall 1 Chaired by Cathy Newman. Panel: Duncan Spencer, Head of Advice and Practice, IOSH; Roxane Gervais, Chartered Psychologist and HCPC Registered Occupational Psychologist; Peter Kelly, Senior Psychologist, HSE and Fionuala Bonnar, Chief Operating Officer, MHFA England

12.35 Lunch and exhibition (70 minutes)

13.05 Theatre workshop 4 (30 minutes during lunch)

Hall 3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save lives with proactive just-in-time alerts

13.45 Leading sustainability and human capital – a panel debate

Hall 1 Panel: Derran Williams, Senior Health and Safety Advisor,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Professor Andrew Sharman, President Elect, IOSH; Bastian Buck, Chief of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and Malc Staves, Corporate Health and Safety Director, L'Oreal

14.30 Summary/conclusions

Hall 1 Professor Andrew Sharman, President-Elect, IOSH

14.50 Parallel sessions (45 minutes)

Hall 9 20 Nudged to safety – behavioural insights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Hall 11 21 Using mindfulness to generate an effective safety culture

Hall 1 22 Enabling change – leading OHS into the new world of work

Hall 10 23 The global fight to save lives from occupational cancer

15.35 Move to next session refreshments available outside each room (10 minutes)

15.45 Parallel sessions (45 minutes)

Hall 11 24 Translating ISO 45001:2018 into reality using VISION ZERO principles

Hall 10 25 Managing health like safety – lessons from Tideway

Hall 9 26 Tackling the leading causes of sickness absence at a strategic level – recovery at work

Hall 3 27 From blind obedience to personal responsibility – delivering new era possibilities through risk type

16.30 Conference closes